

강진군 '챗GPT-4o'으로 외국인 민원 해결 '척척'

베트남 출신 다문화 가정 민원인과 업무처리 재현 시연회 첨단 인공지능 활용 언어장벽 해소 등 민원 처리 속도 개선

강진군이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인공지능 기술(챗GPT-4o)을 적극 활용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강진군은 최근 열린 주간업무보고회에서 베트남 출신 다문화 가정 민원인과의 업무처리를 생생하게 재현해 '챗GPT-4o'의 실시간 통역 기능을 외국인 민원에 활용하는 동영상 제작을 선보였다. 이는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에서 운영 중인 군 산하 공무원 4차산업 연구동아리에서 제안한 것으로 외국인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연결을 목표로 한다.

챗GPT-4o는 오픈 인공지능(AI)이 새로 공개한 신규 AI 모델로, 기존 모델보다 속도가 크게 개선돼 실시간 음성 대화가 가능하며, 50가지 언어를 사용한다. 특히 단순한 기계적인 번역을 넘어 문맥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정확한 번역을 제공할 뿐 아니라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강진군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은 각 실과별로 지난 2월부터 8개의 유료 계정을 제공해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에 있어 언제든지 쉽고 빠르게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오고 있다.

군은 이번 시연회를 시작으로 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 서비스를 지원해 외국인 주민들이 겪는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민원 처리 과정을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수혜자 중심으로 바꿔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남 인구 100명 중 3명이 다문화 가정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과의 소통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쉽고 빠른 AI 활용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과 속도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진군 강진군수는 "챗GPT-4o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과의 소통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무원 4차산업 연구동아리를 활성화해 현업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발굴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군이 최근 '챗GPT-4o' 시연회를 열고 베트남 출신 다문화 가정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업무처리를 시범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강진군 제공>

장성군, 교육발전특구 지정 준비 박차...다음달 신청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의견 수렴 교육·경제·학부모단체 의지 모아

장성군이 교육부가 공모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대비해 지역교육·경제·학부모단체와 의견을 모았다. 장성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에 대비해 '장성군 교육발전특구 연구용역 설명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김한중 장성군수와 이재양 장성교육장을 비롯해 지역 4개 고교 학부모 대표, 지역경제인 협의회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장성군의 교육환경과 제반여건, 자원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용역사로부터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청취했다. 장성군은 2차 공모사업 준비를 마치고 오는 6월께 교육부에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정부 여건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해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



장성군이 최근 김한중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에 대비해 '장성군 교육발전특구 연구용역 설명회'를 가졌다. <장성군 제공>

을 낮추고 머물며 살아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정된 지역은 교육부의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과 지자체 대응 자금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꼼꼼하고 알차게 2차 공모를 준비해 특구 시범지역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제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함평군 맞춤형 신소득 작목 중소형 박과류 소비 확산 박차

함평군이 맞춤형 신소득 작목 육성 시범사업과 박과류 재배기술교육 등 중소형 박과류 소비트렌드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맞춤형 신소득 작목 육성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는 박과류 품종 '신의 한수'는 참외와 멜론을 교배육종한 것으로 과중이 1kg~1.5kg 정도로 소규모 소비트렌드에 적합하고, 당도가 평균 16브릭스(brix) 이상으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으로 기대되고 있다. 함평군은 앞서 24일 작은 과일을 선호하는 소비트렌드에 맞춰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형 박과류 재배 기술교육'을 추진했다. <사진> 농업회사법인 ㈜더드림 육종연구소 권택현 연구소장의 강의로 함평군 수박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교육은 고품질 박과류 재배를 위한 작과 관리, 병해충 방제 기술까지 알찬 강의로 참여 농가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문정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맞는 특새 소득 작목 육종으로 농가소득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나주시 원도심 공동화, 창업으로 해결한다...창업자 10명 모집

다음달 21일까지...사업비 등 지원

나주시가 원도심 상권에서 활동할 예비 창업자 10명을 키워낸다. 나주시는 다음 달 21일까지 '원도심 활성화 창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 원도심에 창업하고자 하는 만 18세 이상 예비 창업자다. 자금이 부족한 예비 창업자가 원도심에서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나주시는 지난해 나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 10명에 대한 창업 지원사업을 벌였지만, 예비 창업자 수요가 빛가람동(혁신도시)에 몰려 올하는

원도심 창업 지원을 기획했다. 나주 원도심은 금남동, 성북동, 송월동,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등을 아우른다. 나주시는 올해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6000만원을 확보하고, 시비 1억 4000만원을 더해 사업비를 마련했다.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1차 서류 심사에서 20명을 골라낸 뒤 교육과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3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나주 관광상품 활용과 영산강요리경연대회 등 입상 여부, 시장 이해도,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보유 역량, 예산 활용 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선정된 예비 창업자는 보조금 1300만원과 자부

담 700만원 등 총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다. 사업비는 기자재 구매와 임차료, 홍보비 등으로 쓰인다. 예비 창업자들은 6주과정 현장 답사와 창업 계획 상담, 노무 관리, 서비스 교육 등의 훈련 과정을 거친다. 원도심 창업을 원하는 예비 창업자는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사업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전남고용노동연구원내 내면 된다. 최종성 나주시 일자리창출팀장은 "이번 지원이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량 있는 예비창업자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 출향인 고향 방문 때 여행비 50% 지원

6월3일부터 비용 지원 사전 신청

화순 출향인들이 고향을 여행할 경우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화순군 문화관광재단은 화순 출향인 고향방문 지원사업인 '화사로와, 화순'을 추진하기 위해 6월 3일부터 여행비용 지원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화사로와'는 '화사로와 와'와 '따뜻하고 화사롭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화사로'는 문화관광재단이 준비 중인 화순 루트맵 개발사업 '화사로 프로젝트'로, 취향 맞춤형 여행 지원사업이다. '화사로와' 지원사업은 고향을 찾는 출향인들에게 여행경비의 50%를 웰컴키트와 화순팍 쿠폰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웰컴키트는 화순팍,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역

제조업체 등과 협력해 여행 필수품인 휴대용 무선 충전기와 '트레블 레디백' 등을 비롯해 다양한 물품을 담았다. 화순군 문화관광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여행 5일 전 사전신청에 이어 여행 종료 일주일 이내 정산신청을 해야 한다. 화사로와 지원사업은 2회차로 나눠 진행한다. 1차에는 취향별로 화순 여행 맞춤형 루트를 제안해 체험 프로그램-트레킹-캠핑 등을 연계한 1박 이상의 체류 여행을 권장할 계획이다. 9월 시작하는 2차 사업은 운주문화축제-적벽문 화순축제-남산축제 등과 연계할 방침이다. 강신기 화순군문화관광재단 대표는 "화사로와 지원사업과 화사로 프로젝트를 연계해 화순 여행을 브랜드화하도록 민간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성 황룡강을 찾은 도보객들이 황룡면 봉덕마을~하사마을 1km 구간에 조성된 맨발 길을 걷고 있다.

장성군 황룡강 순환 산책로 맨발 걷기 길 조성

'10리 꽃길'으로 알려진 장성 황룡강에 맨발 걷기 길이 조성됐다. 장성군은 최근 황룡강 인근 황룡면 봉덕마을에서 하사마을까지 1km 구간 순환 산책로에 맨발 걷기 길을 만들었다고 29일 밝혔다. 부드러운 황토도 맨발 길을 만들었으며, 중간 지점에는 바닷모래 구간도 마련했다. 이용자들을 위한 세족장과 신발 보관함도 갖췄다. 앞서 장성군은 황룡강 상류 황미리에도 맨발 길을 만들어 도시 명품 길을 만드는 데 힘써왔다. 맨발 걷기 길을 추가 조성하면서 장성군은 자전거 구간도 재정비했다.

황룡강 자전거길 17km 구간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일부 구간에 꽃, 수수 등을 심었다. 2황룡교부터 헬기 계류장까지 이어지는 자전거길은 자전거 애호가에게 명소가 알려졌다. 이 밖에도 장성군은 '도시 숲 명품숲길 조성사업'의 하나로 장성을 영천리(1458-30) 일원에 숲길 1km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곳에는 선주목과 철쭉, 남천, 꽃망감, 꼬리조팝을 심었다. 또 옐로우게이트, 장성나들목, 못재터널, 시목교차로 방면에는 조팝나무, 철쭉 등 1만6569그루를 심어 도시 속 생활 숲을 완성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군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 위한 학술대회

31일 화순문화원 2층 강당

화순군이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대회를 오는 31일 연다.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세계유산적 가치(OUV) 규명'을 위한 학술대회'는 31일 오전 9시 30분 화순문화원 2층 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연구한 성과를 발표하고, 운주사의 탁월한 세계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도출할 예정이다. 발표에는 하권 전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과 이계표 전남도 문화유산위원, 오호석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학예연구사, 이경

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위원, 이숙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위원, 이동식 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관리센터장 등이 나선다. 발표 뒤에는 박경식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을 좌장으로 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화순군은 지난해 9월부터 천불천탑의 신비가 있는 운주사를 세계유산으로 실기 위한 종합학술용역에 들어갔다. 이번 학술대회도 종합학술용역 하나로 마련됐다. 이 학술대회에는 화순 운주사에 관심 있는 사람 어떤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한편 화순 운주사지는 국가유산 사적으로 지정됐다.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은 지난 201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